

K-라면, ‘프리미엄·볶음면’ 지형 재편… 식품기업 재정비 나서

삼양식품 국내 프리미엄 제품 강화
농심 유럽법인 신설 등 공급망 확장
오뚜기 진라면 글로벌화 역량 집중
CJ제일제당 볶음면 판매지역 확대

국내 라면 시장이 구조적 변곡점을 맞고 있다. 삼양식품·농심·오뚜기 등 라면 3사의 전략 무게중심이 갈리는 가운데, 글로벌에서는 한국식 매운 볶음면이 K-라면 성장의 새로운 핵심 카테고리로서 부상하며 판이 재편되는 모양새다.

국내에서 먼저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기업은 삼양식품이다. 삼양은 ‘불닭볶음면’ 글로벌 성공으로 확보한 자본력을 내수로 돌리며 프리미엄 시장 개편에 나섰다. 최근 출시한 ‘삼양1963’은 사골 베이스, 고급 원재료, 동결 건

시한 ‘삼양1963’은 사골 베이스, 고급 원재료, 동결 건



삼양1963.



신라면 김치볶음면.



진라면 약간 매운맛.



비비고 볶음면. /CJ제일제당

조 채소 후레이크 등을 적용해 기존 제품 대비 고급화에 집중했다. 1989년 ‘우지 파동’ 이후 36년 만에 우지를 다시 사 용한 것도 브랜드 정통성을 현대적으로 복원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삼양식품은 올해 상반기 매출 1조821억원 중 80%를 해외에서 벌어들였을 만큼 글로벌 성장세가 두드러진 기업이다. 하지만 환율·관세 등 외생 변수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는 약점을 동시에 갖고 있어 내수 기반을 강화하고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균형전략’으로 방향을 튼 상황이다.

반대로 농심과 오뚜기는 정제된 내수 대신 해외시장에서 확실한 성장 동력을

찾고 있다.

농심은 미국에서 월마트·코스트코 등 글로벌 대형 유통사에 제품 입점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유럽 법인 신설 등 현지 유통망 확장에 나서며 글로벌 공급망을 키우고 있다. 연간 수출용 라면 생산능력도 7억개에서 12억개로 늘릴 계획이다.

오뚜기 역시 미국·베트남·일본 중심으로 ‘진라면’ 컵라면 판매를 확대하고, BTS 멤버 진(Jin)을 글로벌 모델로 기용하며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올렸다.

이같은 글로벌 확장은 단순히 내수 부진 보완 차원이 아니다. 글로벌 라면 시장 자체가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이

다. 특히 ‘불닭볶음면’으로 대표되는 한국식 매운 볶음면이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며 ‘K-라면’의 새 성장축으로 자리 잡았다. 국물 라면이 여전히 시장 규모는 크지만, 인기·성장률만 놓고 보면 볶음면이 압도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세의 중심에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있다. 삼양은 불닭 시리즈를 앞세워 식품업계 최초로 연간 수출 9억 달러를 돌파했다. 지난해 7억 달러 수출탑에 이어 불과 1년 만에 세운 기록이다. ‘삼양·탱글’ 등 글로벌 포트폴리오 확장으로 100여개국에서 판매가 이뤄지고 있으며, 미주·중국·동남아·유럽 등 지역별 성장세도 고르게 나타난다.

이에 농심은 ‘신라면 볶음면’, ‘신라면 톰바’에 이어 ‘신라면 김치볶음면’을 전 세계 60~70개국에 출시한다. 농심은 볶음면의 성장세를 ‘신라면 톰바’를 통해 확인했다. 지난해 9월 출시 후 국내외에서 6000만봉 이상 판매된 것.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올해 볶음면 판매량이 전년 대비 약 60% 증가했다.

라면 3사 외에도 CJ제일제당이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판매 중인 ‘비비고 볶음면’을 중동 시장까지 확대 판매한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중동 지역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UAE 기업 ‘알 카야트 인베스트먼트(AIKhayyat Investments, AKI)’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비비고 볶음면 등 K푸드 제품의 중동 판로를 확보했다.

국내에선 삼양식품이 프리미엄 라면 수요를 새로 끌어올리고, 해외에선 볶음면을 앞세운 K-라면 열풍이 농심·오뚜기·CJ제일제당 등의 글로벌 외연을 확장시키며 시장 지형을 바꾸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내수는 프리미엄, 해외에선 볶음면이라는 두 축이 동시에 커지면서 K-라면 시장 자체가 새 판을 짜는 국면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신세계百, 전국 주요점포 연말 문화행사

광주 ‘신세계제과점’ 주제 전시
대전 ‘Holidays Together’ 개최
대구 ‘The Beyond Collection’ 진행

신세계백화점이 연말을 맞아 전국 주요 점포에서 예술과 감성을 담은 전시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광주신세계갤러리는 내년 1월 13일까지 겨울의 베이커리 카페를 테마로 한 신세계제과점: 오늘도, 빵과 커피 전을 선보인다. 빵과 커피를 주제로 이슬로, 김재용 등 10인의 작가가 참여했다. 특히 광주 출신 일러스트레이터 싸비노가 지역 베이커리와 협업한 작품도 공개한다. 전시장에는 에스프레소 드로잉 체험과 도넛 포토존 등도 마련됐다.

대전신세계갤러리는 이달 12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Holidays Together를 연다. 베이스먼트, 권하나 등 7인의



광주 신세계갤러리에서 열리는 〈신세계제과점: 오늘도, 빵과 커피〉 전시.

/신세계백화점

작가가 참여해 가족, 연인, 친구 등과 보내는 연말의 이야기를 다양한 시선으로 담아냈다.

대구신세계갤러리는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하이엔드 아트 전시 The Beyond Collection을 진행한다. 국내외 블루칩 작가들의 리미티드 판화와 원화 등을 전시하며, 작품 구매 고객에게는

상품권 증정 등 혜택을 제공한다.

신세계갤러리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길 거리를 찾는 고객들을 위해 지역작가도 참여하는 등의 미 있는 전시를 준비했다”며 “신세계갤러리가 준비한 다양한 문화 경험을 통해 풍성하고 따뜻한 겨울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CU, 신상품 도입 지원금 상향… 최대 192만원

2026년 가맹점 상생지원안

신상품 중심 가맹점 매출 안정화 주력

CU가 편의점 업계 최초로 가맹점의 실질적인 수익 향상과 안정적인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한 2026년 가맹점 상생지원안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상생안은 간편식, 냉장 디저트 등 핵심 카테고리의 경쟁력을 강화해 가맹점 매출을 안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신상품 도입 지원금을 기존 연간 최대 180만원에서 192만원으로 상

향한다. 지원금은 전체 신상품 도입률과 함께 간편식 및 냉장 디저트 카테고리의 도입률을 기반으로 산정된다. 또 신상품 순환 지원금을 신설해 연간 최대 36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폐기 지원금(연간 최대 600만원)을 포함하면 가맹점은 연간 최대 828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점포당 연평균 102만원 수준의 반품 비용을 지급하며,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한 상생협력펀드 금리 지원 제도(대출금 최대 1억원에 대해 연 2% 이자 지원)도 지속 운영한다.

/손종욱 기자

SSG닷컴, 내년초 ‘쓱세븐클럽’ 출시

장보기 결제 금액 7% 적립 등 혜택

SSG닷컴이 장보기 결제 금액의 7%를 적립해 주는 신규 유료 멤버십 쓱세븐클럽을 내년 1월 초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멤버십의 핵심은 쓱배송(주간·새벽·트레이더스) 상품 구매 시 결제 금액의 7%를 SSG머니로 고정 적립해 주는 혜택이다. 적립된 SSG머니는 SSG닷컴

뿐만 아니라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스타벅스 등 신세계그룹 계열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국내 대표 OTT 티빙(TVING)과 제휴해 방송, 영화, 야구·농구 중계 등 다양한 콘텐츠 혜택을 제공한다. 티빙 혜택은 기본 구성에 포함하지 않고 고객이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옵션 형태로 운영해 가격 합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손종욱 기자

롯데마트 토이저러스, 완구 2000종 할인

롯데마트 토이저러스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오는 25일까지 총 2000여종의 완구를 최대 40% 할인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인기 브랜드 레고 300여 종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레고 마스터 드래곤 에갈트, 레고 F1 트럭과 RB20 & AMR24 F1 레이스카 등을 할인가에 내놓는다. 행사 기간 레고 제품

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사은품을 증정한다.

캐지! 티니핑, 헬로카봇, 미니특공대 등 인기 캐릭터 완구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인다.

닌텐도 스위치2 본체와 삼성SD카드 패키지 구매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인기 게임 타이틀도 최대 20% 할인한다.

/손종욱 기자

남양유업 남양몰 최대 73% 할인

‘건강한 시작’ 남양유업이 연말을 맞아 내년 1월 4일까지 자사몰 ‘남양몰’에서 최대 73%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연말 감사 릴레이 특가’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커피, 단백질 음료 등 ‘릴레이 특가 워크’와 매일 선착순 핫딜을 통해 연말 소비자 혜택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행사는 남양몰 S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5만 원 이상 구매 시 추가 12% 할인 쿠폰을 지급하며, 누적 구매 금액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는 ‘구매왕 이벤트’도 함께 운영한다.

/신원선 기자

신제품

오뚜기 쥬러스 미니붕어빵 2종

오뚜기가 겨울철 대표 간식인 붕어빵을 쥬러스 감성으로 재해석한 신제품 ‘쥬러스 미니붕어빵 2종(초코·말차)’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쥬러스미니붕어빵’은 바삭한 쥬러스 반죽에 은은한 계피 향을 더해 풍미를 살렸고 속은 쫄득한 식감을 구현했다. 한 입 크기의 미니 사이즈로 언제 어디서나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공식 자사몰 ‘오뚜기몰’을 비롯해 각종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에서 구매 가능하다.

/신원선 기자